



## 좌담회

# 새로운 가정학 교수법

교과서의 내용과 가정 생활의 내용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이 좌담회의 본 뜻이었습니다. 실천에 가능성이 없는 이론을 가르친다는 것은 깊이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그 자체가 하나의 생활일 수 있어야 하겠고, 지식이 곧 산 교양이 될 수 있어야 하겠읍니다. (편집자)

사회 「새로운 가정학 교수법」이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말씀하게 된 것을 펴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 이념이나 수단 방법에 있어서는 옛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겠읍니다만 여러가지 사회의 변동, 또는 교육 과정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가정학에도 새로워져야 할 면(面)이 있고, 다시 요구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한 우리의 견

해, 또한 지향해야 하리라는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필순 선생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나타나는 생활 내용과 학생들의 대부분의 가정생활의 내용과 거리가 먼 때가 있습니다. 단원을 취급할 때 그것의 근본 목적 혹은 원리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을 잘 인식시켜서 자기가 앞으로 가질 생활 또는 지금 현재의 생활에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생활에 어떻

게 적용하느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겠읍니다.

**박경자 선생님** 그런 어려움에 부딪친 일이 많습니다.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하고 보면 학생들의 실천에 가능하지 않는 점이 참 많어요.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발달되고 좋은 여러 이론과 Idea 들을 자기 생활에 짜 넣을 수 있는 기초를 주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물 이해 혹은 사회의 물 이해로 인해서 학생들이 당장 실천하는데에 어려운 점이 많읍니다.

**김필순 선생님** 실천에 옮기기에 어려운 이유를 제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읍니다.

**김분칠 선생님** 오는 교과서와 학생 생활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고충입니다.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이론에 꼬치지 말고 실지로 해 보도록 하지요.

**윤서석 선생님** 저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가끔 생각해 봅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하면 어려가지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 서울의 여러분이 그러하실 때는 농촌의 가사과 지도 교사의 고충은 더 하리라 믿읍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관련에 대한 독립적, 과학적, 위생적인 정신을 완전히 파악케 하면 좋을 것읍니다.

**김봉란 여사** 너무 막연한 가르침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벽지라도 좀 고를 수 있고 커어텐의 빛갈, 디자인이라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읍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가지 이론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러 주시면 되리라 믿읍니다.

**사회** 저는 어떤 가사 시간에 여자의 월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월경은 120g~150g의 양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강의를 하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런 것도 우리 학생들이 어

참 석 자

- 이 태 현.....(사 회)
- 강 연 숙 선 생 님 (진명여교)
- 이 경 선 // (풍문여교)
- 김 필 순 // (진명여교)
- 김 분 칠 // (수도사대)
- 윤 서 석 // (물리사대)
- 김 봉 란 // (회 원)
- 이 정 원 // (간 사)
- 박 경 자 // (참뵈여교)
- 김 정 애 (참뵈여교)
- 박 남 길 (총 무)

단기4292년 7월 18일 <토>

오후 3시—5시 35분

면 때에 의사를 찾아야 한다는 경우를 상세하게 인식시켜서 학생들이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으시겠다고 생각했읍니다.

**윤서석 선생님** 우리가 가사를 무슨 수학이나 기하같이 다룬다면 학생들의 가정 생활하고 딱 거리가 멀어지고 말 것이예요.

**박경자 선생님** 근본 문제는 교과서에 어느 정도의 중심을 두고 학생들의 실생활에 결부시켜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 하겠지요. 또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학생들에게 실지로 보여 주어야 할 일이 많은데 이 때에 어디로 가 견 보여 줄 수 있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읍니다. 이것도 보여 줄 수 있는 실정 이라면 신 교육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윤서석 선생님** 서울서는 그러한 애로가 없으실 줄 알았어요. 우연히 이번에 전라북도, 충청북도 학교에 참관한 일이 있었는데, 모든 교육시설이 불비해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결할 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가사 선생님의 고충이 많으시다는 말씀

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가사 선생님 또 실업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문화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학생들이 견학해야 할 기구를 구입해서 공동적인 교육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의 있었읍니다.

박경자 선생님 직접 경험을 못주게 되면 잊어버리고 말지요.

이경선 선생님 교과서를 다 못 배우더라도 우선 실생활에 맞게 실천하는 교육을 시키고 정서면 예의면 등을 참작해서 산교육으로 이끄러 주었으면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 그런 생각은 교장선생님 남자 교사 여

**家政學**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분야를 통하여 가정생활을 강력히 하는 주 관성적 봉사와의에 대한 지식이다. 즉 여러가지 분야라고 하는 것은: ① 가정생활을 잘 영위하도록 개인을 교육 시키는 일 ② 가족에 의하여 사용된 물건과 가족에 대한 봉사적 정신 향상 혹은 개량. ③ 개인이나 가족의 필요에 대한 변화성을 찾으려는 연구의 지도와 이러한 필요에 대한 만족의 뜻. ④ 장래에 있어서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조건이 가족을 위하여 편리하게 하려는 분야.

**家政學**은 자체의 연구로부터 또 물리학, 생리학, 그리고 사회과학과 예술로부터 획득하여 지식을 합성하며, 이러한 지식을 응용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은 다음에 표시하는 가족생활에 대한 견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① 가족관계와 아동발달. ② 개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消費와 기타 경제적 견지 ③ 영양에 대한 요구와 식품에 대한 선택, 저장, 조리와 사용. ④ 피복의 설계, 선택, 구조, 그리고 손질과 더불어 이에 대한 의미심장한 심리적 또는 사회적 문제. ⑤ 피복과 가정을 위한 방직. ⑥ 가정을 위한 주택과 주택내에 설치할 세간과 장식. ⑦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예술. ⑧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잘 지배 함으로써 개인, 가족, 또는 사회가 목적하는 뜻을 달성하다.

**家政學**은 여러가지 생활에의 견지를 영위하는 사업체적 분야가 아니라 가정학이 형성하

는 전반적 문제와 이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는 유일의 분야라고 하겠다. 또한 가정학은 유일의 분야로써 가족의 일상생활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향상을 초래하도록 조력한다. 강력히 주장하는 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견지는 현재사회환경으로 기인하는 가족과 개인의 필요에 의거하여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학이란 무엇인가?

또한 **家政學界**의 목적은 교육을 통하여 이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기르며 이러한 인재들로 하여금 교육, 기초연구, 사회사업, 공중보건의사업, 榮養工, 기업체운영,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다른 교육기관과의 밀접한 협력이 있어야 하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소년과 소녀 여자와 남자를 조력 하는데 책임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家政學界**의 활동은 다른 분야와 함께 선량한 시민이 될 것과 장래를 위하여 효과적 생활을 하도록 국민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

Committee on Philosophy and Objectives of Home Economics and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59. Home Economics New Directions  
A Statement of Philosophy and Objective

P4-5.

(문수재 옮김)

자 교사가 다 같으신지요.

**이경선 선생님** 다른 선생님께서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 다만 대동소의 할 것입니다.

**사 회** 그러면 다음에는 고등 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입시문제라든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어느 기술을 습득 한다든지 또는 공연히 가정과 시간을 시간 허비로 생각하는 학생이나 어머니를 배반 뵈게 되는데 이런 때에 가정과 선생님들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지도를 하여야 가정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서석 선생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정과에 오는 학생은 가정과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실지 경험과 실습을 하여서 연구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고 기회를 되도록 마련해 줄 것 인니다.

**김봉란 여사**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가정과에 취미를 가지도록 할 것 인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나 도회지에서나 자기 생활 수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게 기회와 자극을 주어야 할 것 인니다.

**윤서석 선생님** 학생들에게 생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부담이 크시더라도 서로 관련성 있게 한 선생님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 요사이 대학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윤서석 선생님** 대학에서는 분과적으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전공외에 종합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실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과목과 과목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관련성 있게 강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 회** 강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교육하신다면 저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연숙 선생님** 역시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영양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영양을 많이 취급하게 되더군요.

**윤서석 선생님** 종합적으로 지도하려하는 주 전 공이 정해져서는 안 될 것 입니다.

**김정애 선생님** 한 선생님이 종합적으로 다루면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도 꽤 좋으나 교사가 여러 부면으로 넓은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교사가 하고 싶은 과목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어요.

**윤서석 선생님** 교과서를 대강 기준으로 하시고 문교부의 교과서를 종합 취급하실 때 책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실습과 이론이 결합 나갈 수 있도록 과정이 작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이번 기회에 궁급하게 생각하시면 것 말씀 해 보세요.

**윤서석 선생님**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가지 기구를 실업 가정과에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회** 실업과를 실시하기에는 너무 교실의 치수가 크지요. 실업 체계를 완전히 하려면 우선 교실을 조그맣게 꾸며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애 선생님** 결국 말하자면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필순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인데요. 대학에서 입학 시험 때 너무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에는 고충이 많습니다.

**박남길 선생님** 문교부나 각 대학에서는 그런 점을 많이 깨다르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 회**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신지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